

3년차 맞는 박근혜 정부 광주·전남 주민들의 바람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출범 2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3년 동안이라도 호남 소외를 중단하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등 호남지역 대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큼 호남지역 예산 소외 및 인사 출대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은 컸고,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었다. <관련기사 3·4면>

실제로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호남 예산

“인사탕평·호남 대선공약 지켜달라”

문화전당 특별법 통과·창조혁신센터 인프라 활성화 MB때보다 심각한 호남 인사소의 이젠 개선 나서야

출대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대통령 공약 사업 예산 반영률은 출범 2주년을 맞이했는데도 각각 5.5%와 3.2%에 불과하다.

심철의(41)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현 정부에 사실 큰 기대도 하지 않지만, 남은 임기동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자

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완성 등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현(54) 다케이산업 회장은 “광주시는 생산중심의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및 광산업 활성화 등이 진행중인데, 최근에 경기 상황이 침체하다 보니, 지역 경제

인들이 투자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더욱 활기차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정부 지원으로 창조혁신센터가 생긴 만큼, 인프라 활성화도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사 또한 이명박 정부 보다 더 심하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평가다. 2012년 2월 박 대통령 출범 당시 광주·전남 출신 청와대 수석비서관 급 이상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과 이정현 정부수석, 이남기 홍보수석 등 3

명이었지만, 지금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직급에 광주·전남 출신은 단 한명도 없다. 국무위원회 현 정부 출범 당시 완도 출신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일했고, 지난해 6월 개각 때 함평출신 이기관 장관뿐인 상태다.

김보현(49) 광주시의원은 “호남 예산 및 인사 출대 등은 박 대통령 집권 2년 동안 꾸준히 지역에서 지적해왔지만,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남은 임기 3년이라도 박 대통령이 취임 초반 밝혔던 당령

인사와 함께 광주·전남에 내건 대선 공약을 추진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문화계에서는 올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문화예술산업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훈(45)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는 “현 정부가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의 하나로 내세운 것은 고무적이나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책 사업으로 조성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박진표 기자 cki@kwangju.co.kr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24~25일)을 하루 앞둔 23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홍보물을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11 조합장 선거 ‘무자격 조합원’ 논란

광주·전남 농축협서 1만5000명 자격박탈... 곳곳서 시비

오늘·내일 후보등록... 광주 50명·전남 550명 접수 예상

오는 3월11일 치러지는 전국 농·축·수협·산림조합장 동시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24일 시작돼 25일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25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인명부 열람을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들의 자격회복 신청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3일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등은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

인명부 작성(20~24일), 이의신청 접수(28일까지) 전까지 무자격 조합원 정비에 들어가면서 탈퇴 조합원들의 자격회복 논란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농협 등이 지난해 조합장 선거를 대비, 조합별로 간이 조사했던 것을 조합별 정밀조사를 거쳐 무자격 조합원을 대거 탈퇴 처리하면서 빚어진 상황이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 농·축협에서 탈퇴

처리된 무자격 조합원은 2012년 5000여명에서 지난해 1만5000여명으로 2년 사이에 1만여명이 늘었다.

지역 단위농협의 평균 조합원 수가 1500여명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무자격 조합원의 자격 재취득 여부가 선거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해 200여명이 넘는 무자격 조합원이 탈퇴 처리된 A지역 조합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 전 일부만 조합원 자격을 회복하다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강진지역 B농협의 경우 이와 관련 조합원이 조합장 등을 사문서 위조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후보자들이 탈퇴조합원 가운데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조합원의 자격 재취득을 독려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농협 측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는 광주에서 농·축·원협 16곳과 산림조합 1곳, 전남에서는 농·축협 143곳, 수협 17곳, 산림조합 19곳 등 총 179곳에서 치러진다. 광주 유권자 조합원은 3만2000여명, 전남 44만여명이다. 24~25일 후보자 등록기간에 광주에서 50여명 전남에서는 550여명 등 600여명의 후보가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亞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 ‘표류’ 2월국회 통과 오늘이 마지막 기회

당정, 재정지원부문 수정 요구

국회에서 표류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해당 상임위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해자 의원 등에 따르면 국회 교문위는 24일 법안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광주시와 박 의원 등은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가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의원 점수 감안, 최선을 다해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생각이다.

24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렵게 되고 이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9월 공식 개관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관 준비를 위한 인력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전당을 채울 콘텐츠 준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교문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12월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정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를 뒤집고 법안 처리에 대해 반대를 해오고 있어 아득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내용 중 재정지원 부문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개정안에는 ‘아시아문화전당 운

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행규정돼 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공개적으로 당부해 주목된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며 “아시아문화전당의 9월 개관을 위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부와 교문위원들과 함께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제는 행자부와 기재부 등 정부의 반대 여전하다는 점. 정부에서는 여전히 아시아문화전당을 한시적으로 국가 소속 기관으로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SIGNIA CREAM

나르시스에서 피어나는 무한한 생명력
헤라 시그니아 크림

고귀하고 강인한 아름다움의 상징 나르시스-그 절정의 생명력을 피부에 선사하는 안티에이징의 정수, 헤라 시그니아 크림
3백만 나르시스 스템셀이 피부에서 피어나는 순간
거울 속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HERA

*유통역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료외부담) www.hera.co.kr